

필요한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많은 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자격** 전국민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제안 방법**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 PC 및 모바일 페이지 운영

\* 제안양식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사업제안 메뉴에서 다운로드

**신청 기간** ~ 2021. 3. 31. 까지

\* 2022회계연도 예산사업으로 검토

\* 2021. 3. 31. 이후 제안은 2023회계연도 예산 반영 검토

**대상 분야**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 기존 사업의 개선사항도 가능

**제안 선정** 우수 제안으로 선정 시 중앙부처 검토 및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

\* 우수 제안의 경우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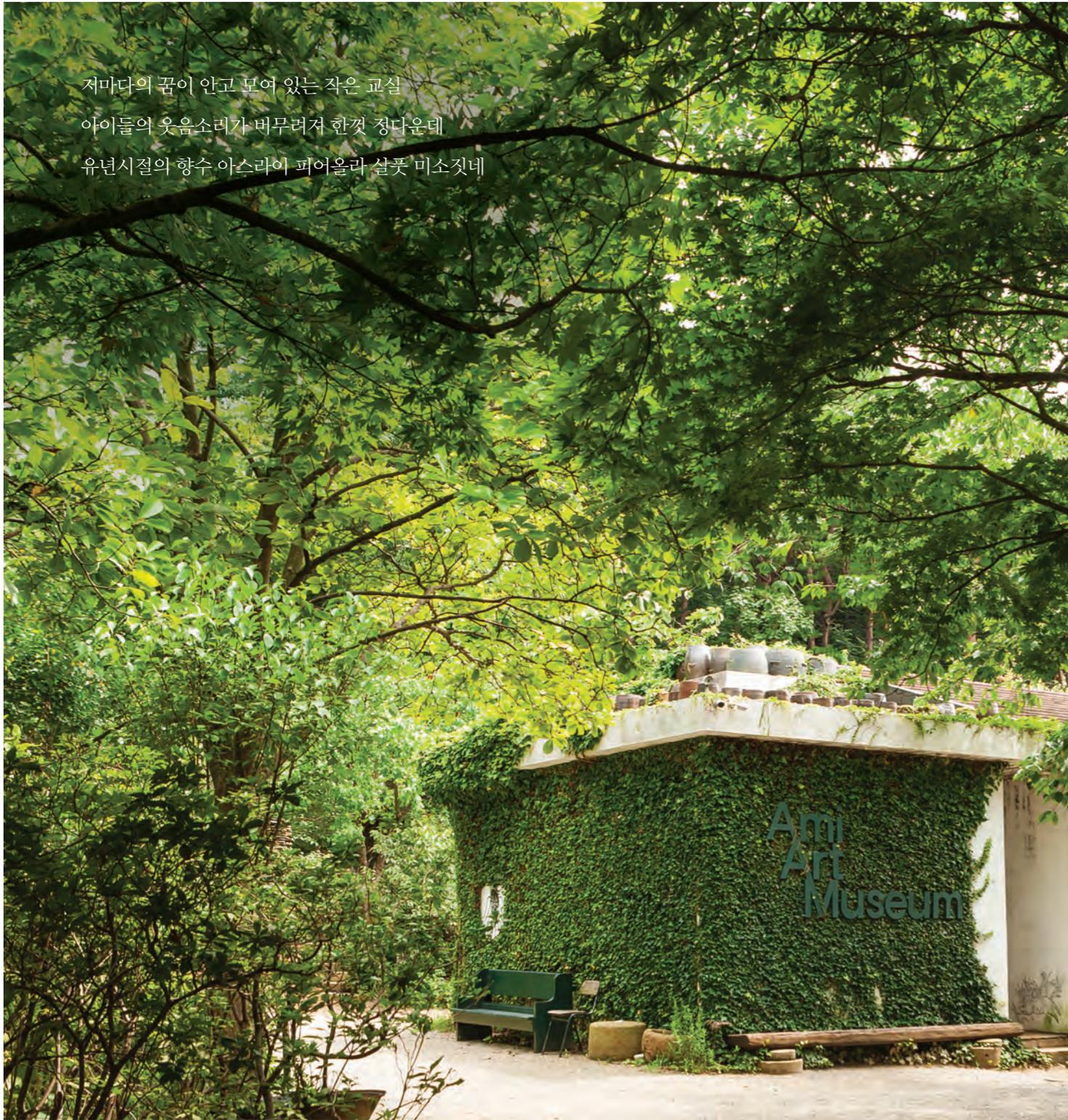
66

지금, 우리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99



저마다의 꿈이 안고 모여 있는 작은 교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버무려져 한껏 정다운데  
유년시절의 향수 아스라이 피어올라 살포트 미소짓네



전기로 만드는 행복

# 서북공감

Korea Western Power Magazine



한국서부발전 사보 서북공감 2020년 9+10월호(통권 제97호)

발행인 김병숙 / 편집인 임정래

기획 정래현, 권태환, 김예지 / 발행일 2020년 9월 15일

발행처 한국서부발전(주) www.iwest.co.kr

홍보부(041-400-129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32140)

기획·디자인 (주)에이치그라운드 02-2635-3068 / 사진 스튜디오 집

인쇄 (사)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02-2271-2526 

※ 본 사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사회적기업에서 인쇄·발간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 WP & ISSUE

- 04 Intro
- 06 Movement | 교육나눔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을\_서부 위피스쿨
- 10 People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_국정과제추진실 사회공헌부 소삼영 부장, 김봉춘 차장 인터뷰
- 14 Communication | 에너지에서 서북공감까지, 10년 전 오늘 WP 타임슬립

## NOW AND HERE

- 18 Column | Edu For All 지구촌 교육나눔의 현장
- 22 Local Tour | 시간 품은 폐교로 추억여행\_폐교의 화려한 변신
- 28 Local Partner |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_교육혁신리더와의 만남
- 32 Value up | 아름다운 꿈을 지탱해주는 사람들\_국내 교육나눔활동

## FOR SOUL AND BODY

- 36 Intro
- 38 서부인 신입일기 |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의 나날\_보안처 비상계획부 강현준 사원
- 40 서부인 맨슬리플래너 | 한 달의 재발견! 31일의 아름다운 도전
- 44 Cinema Therapy |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기억과 무엇이 다른가\_영화 스포 트라이트
- 48 잘있니, 그 시절 | 팬덤문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_팬덤문화 변천사
- 50 트렌드 2020 | 옴로(YOLO) 대신 홀로(HOLO)\_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트렌드
- 52 열정, 불을 붙이다 | 세계는 유튜브 전성시대!\_유튜브 창업자, 스티브 첸
- 54 세계는 휴식 중 | 지식과 휴식의 참고! 세계의 도서관
- 55 지속가능 프로젝트 | 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까지!\_트리 플래닛
- 56 펫츠고 | 반려동물을 위한 이색서비스
- 57 나도 모르곶 | 당신의 관절을 망치는 사소한 습관

## KNOCK-ON WP

- 58 WIN-WIN | 대담한 도전정신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_(주)보강하이텍
- 60 WP NEWS | 한국서부발전 뉴스
- 63 WP EVENT

**06 Movement**

교육나눔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을\_서부 위피스쿨

**10 People**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_국정과제추진실 사회공헌부 소삼영 부장, 김봉춘 차장 인터뷰

**14 Communication**

에너지家에서 서부공감까지, 10년 전 오늘 WP 타임슬립

**18 Column**

Edu For All 지구촌 교육나눔의 현장

**22 Local Tour**

시간 품은 폐교로 추억여행\_폐교의 화려한 변신

**28 Local Partner**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_교육혁신리더와의 만남

**32 Value up**

아름다운 꿈을 지탱해주는 사람들\_국내 교육나눔활동



# WP&ISSUE ——— NOW AND HERE

# 교육나눔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꿈과 희망을

한국서부발전은 ‘행복에너지, 정다운 이웃’이라는 슬로건 아래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 지역사회에 따뜻하게 다가가 학생들의 교육 성취를 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돕는 교육나눔 사업, ‘서부 위피스쿨’(이하 위피스쿨)을 알아본다.



## 지역사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나눔 사회공헌활동

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인식 아래,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본사와 주력발전소인 태안발전본부가 있는 태안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피스쿨’은 ‘어제의 배움으로 오늘을 나눕니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태안지역 초·중·고생들의 학습지도, 진로 등을 멘토링 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기를 배출하였으며, 새로운 기수를 맞이할 때마다 수백 명의 태안지역 청소년 멘티와 전국의 우수한 대학생 멘토가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 다채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으며 정을 나눈다.

위피스쿨은 리더십과 봉사마인드를 갖춘 태안지역과 전국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재능을 펼칠 기회의 장으로, 이 현장을 통해 지역사회 미래인재를 위한 학습지도, 진로 상담, 정서교류, 전공분야 창의융합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 7번째 대학생 멘토와의 교육나눔활동 스타트

2017년 여름방학에 시작된 1기부터 지난 1월 21일 마무리된 6기까지 총 124명의 멘토가 1,214명의 멘티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서로의 정서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교육나눔을 실현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은 서울에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지역사회 교육 나눔을 위한 ‘2020년도 서부 위피스쿨 7기 멘토 발대식’을 개최했다.

위피스쿨 7기는 8월 3일~7일 초등부 온라인 멘토링을 시작으로 8월 8일에는 고등부 진로콘서트 1회차 시행, 8월 10일~14일 중등부 온라인 학습진행, 8월 15일 진로콘서트 2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활동을 비대면 온라인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온라인 프로그램은 태안지역 초·중학생들은 영어, 토론(논술), 체육(홈트레이닝), 실과(코딩) 등 4과목으로 진행되었으며 태안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로콘서트도 펼쳐졌다. 진로콘서트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입시 정보, 학습 노하우, 정체기 극복사례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위피스쿨 전 기수 멘토들이 특정 학과나 대학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상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위피스쿨은 헛수를 거듭하며 지역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노하우 전수, 정체기 극복사례 공유 등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 History Of WEEPY SCHOOL

### 활동내용

태안지역 초·중·고교생 멘티들을 대상, 대학생 멘토들의 학습(영어, 수학) 지도·진로상담·정서교류 멘토링 및 대학탐방·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

### 기수별 활동현황

- 2017.07.~2017.08 : 1기 멘토링 활동(멘토:20명, 멘티:163명)
- 2018.01.~2018.02 : 2기 멘토링 활동(멘토:20명, 멘티:256명)
- 2018.07.~2018.08 : 3기 멘토링 활동(멘토:20명, 멘티:258명)
- 2019.01.~2019.02 : 4기 멘토링 활동(멘토:20명, 멘티:247명)

### 파트너기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태안교육지원청

# 함께 성장하는 멘토를 만나다

## 우수 멘토 4인방 인터뷰

위피스쿨에서는 학교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멘토가 멘티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조언과 상담을 아끼지 않았다. 때로는 이웃집 언니, 누나가 되어 때로는 랜선 선생님이 되어 멘티의 곁에 머물렀던 멘토들! 지금부터 위피스쿨의 우수 멘토 4인방을 만나본다.

-멘토명: 곽아연, 김보경, 김예진, 박다혜

### Q 대학생 멘토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보경** 중학교까지 태안에서 보낸 저는 태안의 교육환경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곽아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서부 위피스쿨에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일지라도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서로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고요.

### Q 위피스쿨에서 만난 멘티 중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김예진**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두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의 어색한 모습에 행여 수업에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친해져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저를 위한 온라인 바이올린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두 친구가 연습실에서 만나 연주하는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보경** 가장 기억에 남는 멘티는 ○○초등학교 김□□ 학생입니다. □□학생은 자신이 못하든 잘하든 힘든 어렵든 긍정적인 자세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수업을 듣고 어떤 수업이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학생의 얼굴을 보면 늘 기분이 좋아져 더욱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 Q 위피스쿨에서 활동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곽아연** 문법 수업을 할 때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열심히 필기하면서 듣는 모습, 영어로 말해보도록 유도할 때 최대한 열심히 영어로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고,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다혜** 수업이 즐거웠다고 했을 때, 수업했던 자료로 앞으로 자신이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멘티 각자에게 신경 써주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모두 잘 따라와 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 Q 위피스쿨 활동을 통해 본인의 성장지점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김예진** 위피스쿨은 그 자체로 저의 자존감이 되어주었습니다. ‘나의 노력에 이렇게 큰 사랑으로 보답해준단 말이야?’라며 감동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 기억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보경** 온라인 수업에 체육을 접목해야 해서 부담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다혜** 이번 여름방학은 지금까지 보내온 방학 중에 가장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보낸 방학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꼼꼼히 활용하는 습관도 가질 수 있었고, 아이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인내심과 배려심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곽아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편안하게 대화하고 교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다른 과목 멘토분들과 함께 활동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완수해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Q 태안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교육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보경** 위피스쿨은 저 스스로 성장하고 강해지는 계기임과 동시에 태안에 대한 애향심과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예진** 아이들의 시선이 태안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지역으로, 다른 국가로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다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온라인 위피스쿨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곽아연** 온라인으로나마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의 활동 기간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 운영해나갈 교육 프로그램도 응원하겠습니다.

## See You Again WEEPY SCHOOL

### 위피스쿨 7기를 보내며 국정과제추진실 사회공헌부 강정화 대리

이번 위피스쿨은 코로나19로 인해 종전의 서부 위피스쿨과는 전혀 다른 비대면 멘토링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현직 교사분들의 조언이 밑바탕이 된 초·중등부를 위한 심화학 습지도, 반짝이는 멘토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맨스쿨과 고등부를 위한 진로콘서트 등 모험과도 같았던 온라인 위피스쿨은 여러 사람의 열정이 녹아들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 마냥 순수했던 초등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맞이했던 중등부, 해주고 싶었던 경험담이 너무나도 많았던 고등부 멘티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해준 부모님들의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며 함께 머리를 맞댄 한국서부발전과 대학사회봉사협의회, 그리고 대학생 멘토들! 이전 기수처럼 많은 인원과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였기에 그 어느 때 보다 빛나고 값진 시간이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사 처음으로 온라인 멘토링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우린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속적인 교육나눔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 인재양성에 앞장설 것이다.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 국정과제추진실 사회공헌부

최근 개인의 노력이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위기가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일원인 공공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추세이다. 이에 기업과 지역민의 따뜻한 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의 사회공헌부를 찾아갔다.



# 나눔과 실천으로 기업과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다

## -사회공헌부 소삼영 부장

###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궈낸 상생과 협력

한국서부발전의 사회공헌 활동은 광역단위를 넘어 주변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사업으로 지역상생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과 상생·협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정과제추진실의 사회공헌부가 자리하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사회공헌부를 이끌고 있는 소삼영 부장은 사회와 더불어 고민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업무로 사회공헌업무, 지역협력업무,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본사이전 후속업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태안화훼농가 판로구축사업, 시니어 일자리사업,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나눔사업으로 서부 위 피스쿨,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꿈너머꿈진로멘토링,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위피 드림북희망나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일자리 및 인구감소, 주민 간의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한국서부발전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소삼영 부장이 특히 자랑하고 싶은 성과는 따로 있다. 2015년 한국과 중국의 FTA 협정으로 위기를 맞은 농어촌의 상생협력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2017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출연한 것이다. 현재까지 누적 출연금은 168억 원으로 공공기업 중 한전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출연하였다. 이 기금으로 한국형스마트팜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작업장 생산설비 지원사업, 공공의료 역량강화사업 등 30개가 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다른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전파되어 현재까지 전체 상생기금이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고 한다.

소삼영 부장은 일회성, 단발성 사회공헌이 아닌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정부정책 동향, 지자체의 주요추진업

무 등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발빠른 정보습득은 구체적 계획과 실행으로 이어져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소삼영 부장은 앞으로도 일방적 사회공헌보다는 지역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입사 후 주로 관리처나 국정과제추진실 등에서 지원업무를 도맡았는데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사업개발업무에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에서 성공에 이르기까지 지금과는 또 다른 성취감을 맛보고 싶다는 소삼영 부장. 앞으로 그의 열정이 피워낼 한국서부발전의 미래를 기대한다.



### Cheer Up Message 소삼영 부장의 업무루틴

사회공헌부는 주로 민원인, 사회복지기관, 군청 등 지역주민과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서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지역주민을 만날 때 친절하게 대응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 줄 수 있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 마인드를 가지다 보면 고된 업무가 발생하더라도 너그럽게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사회공헌활동으로

### -사회공헌부 김봉춘 차장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자랑하며

국정과제추진실 사회공헌부 김봉춘 차장은 2019년 12월부터 사회공헌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헌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지역의 미래인재로 거듭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교육사업 ‘서부 위피스쿨’은 학습지도 능력과 봉사마인드를 갖춘 우수 대학생들의 멘토링 활동으로 태안지역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생에게는 차세대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을, 지역사회에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Pathmaker 교육사업을 새롭게 런칭하였다. Pathmakers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위기청소년에게 창업 실험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함께 긍정적인 대인관계 등 삶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봉춘 차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다시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받은 도움을 다른 위기 청소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 한국서부발전 고유의 사회공헌 브랜드가 구축될 때까지

화력발전소 운영 특성상 농어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수도권의 교육인프라 수준과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김봉춘 차장은 ‘교육은 한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발전 및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며, 양극화·지역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아모레퍼시픽의 핑크런, 현대차의 기프트카 캠페인과 같이 각 기업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주요 사안이라고 말

한다. 사기업의 경우 주요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펼치는데 반해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야 하다보니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때문에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한국서부발전 고유의 사회공헌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김봉춘 차장은 최근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재미있는 일이었다”라는 문구를 보고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그동안 사람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앞으로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해보고 싶다는 김봉춘 차장. 그의 멋진 행보를 기대한다.



Cheer Up Message

김봉춘 차장의 업무루틴

사회공헌은 무엇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다니며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등 관계자들과 많은 소통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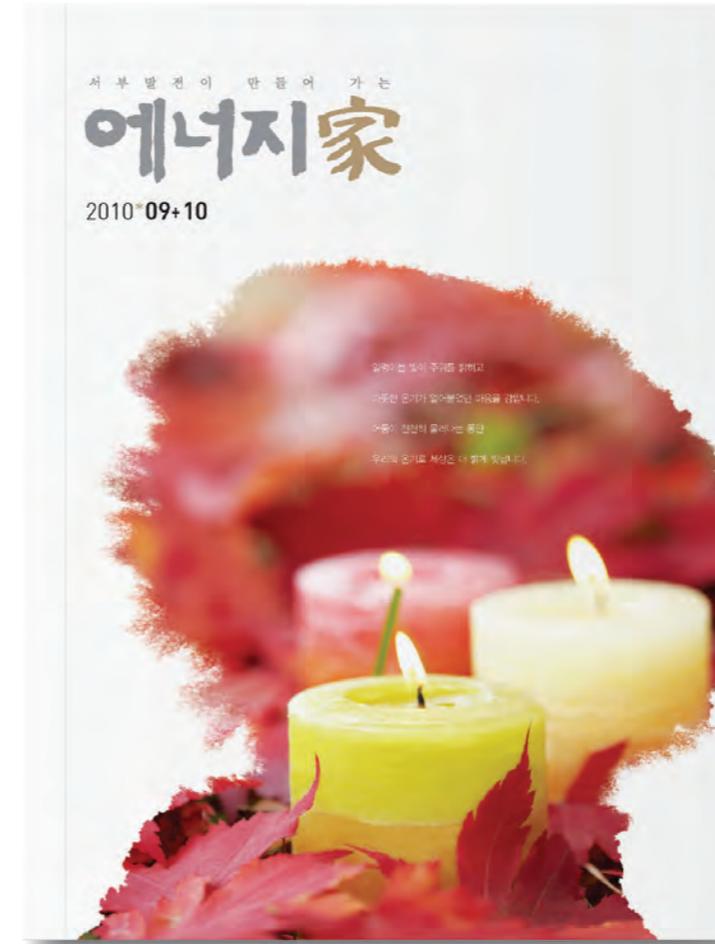
# 에너지家에서 서부공감까지 10년 전 오늘, WP 타임슬립

## 2010년 <에너지家> 9+10월호를 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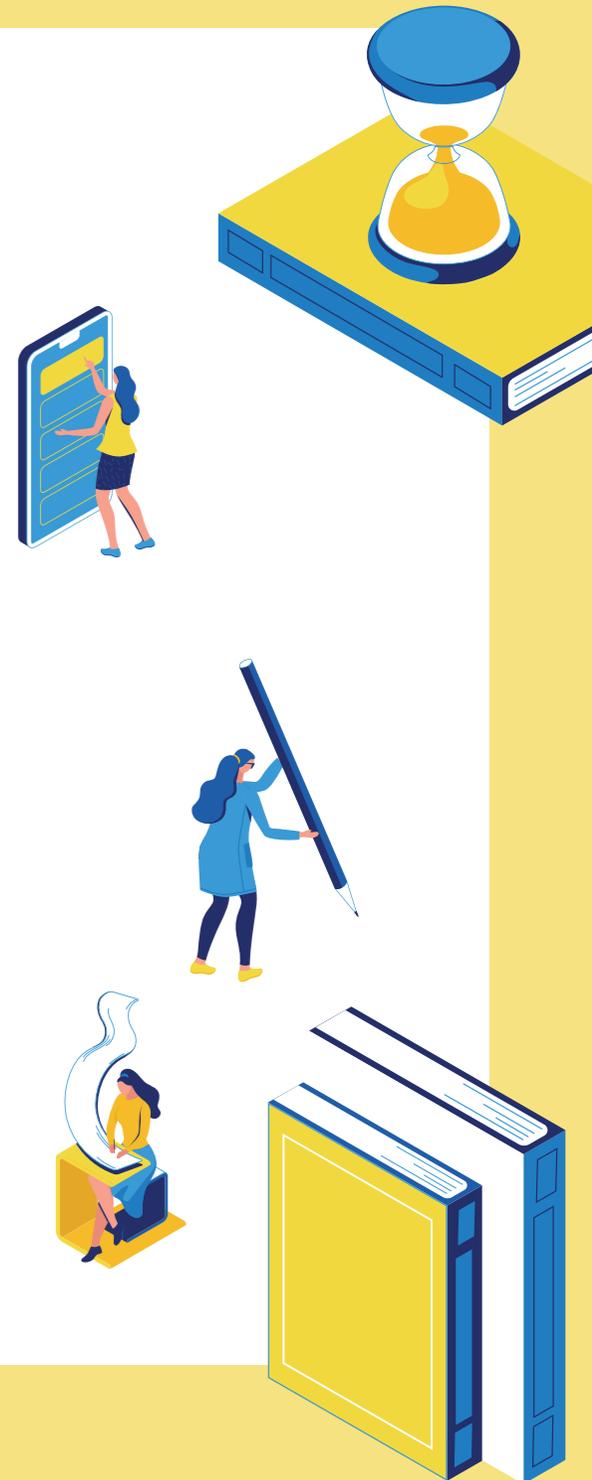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서부발전의 사보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성장해왔다.  
2020년 현재의 사보 <서부공감>이 오기까지,  
10년 전 한국서부발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 준 <에너지家>를 들여다본다.



가을 들녘은 맑은 햇살을 온몸으로 품고 붉게 익어간다. 더위를 지나 비바람을 견뎌왔기에 이토록 벅찬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는 걸까! <에너지家>의 9+10월호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가을과 겨울 사이 따스함을 선사한다. 초록빛 탐스런 색깔은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풍요로운 붉음을 보고 있노라면 미소가 절로 인다.



<에너지家> 9+10월호 표지





### 칼럼명 WP Focus1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력시대를 열다-군산복합화력발전소 준공식



군산발전본부

### 칼럼명 WP Focus2 통합정보시스템(WinERs) 본격 가동



신전자도서관

#### 2010 그때

2004년 폐지되었던 군산화력발전소 자리에 새롭게 건설된 군산복합화력발전소가 준공식을 가지며 6년여의 시공 과정을 마무리했다. 780MW의 대용량, 고효율이라는 점은 물론 공원형 발전소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상생하고자 하는 군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군산복합화력발전소. 2010년 9월 7일 시행되었던 준공식 현장에서는 새로운 전력 기지로서의 군산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0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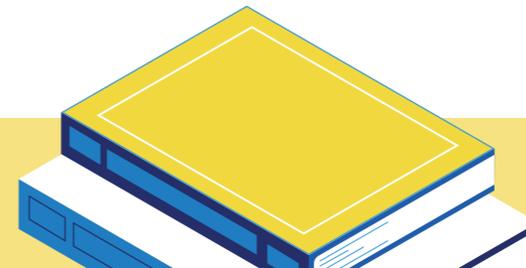
군산발전본부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최첨단 환경친화형 발전소이며, 전북지역 전력수요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비록 도시 내 인구 밀집 지역에 있지만 철저한 환경관리와 청정연료의 사용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했고 개방형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발전소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가스터빈은 국내 최초로 최신기종(G-Class)을 적용, 국내 최고수준의 발전효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에 따라 송전선로 및 공급용수가 확보된 기존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경제성을 최대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도 군산발전본부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전북지역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커다란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2010 그때

한국서부발전은 2010년 8월 1일부터 통합정보시스템(WinERs)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본 프로젝트는 총 16개월 동안 분석, 설계, 구축, 이행, 안정화의 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발전설비, 자재구매 등 12개 분야는 2010년 1월로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를 확정하고 6개월간의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 데이터 이관 등 이행단계 업무를 완료하여 8월 1일 통합가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재무·인사·설비관리(GENi)·구매·연료 등의 업무가 하나로 일원화됨으로써 경영자원의 실시간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용이해졌다.

#### 2020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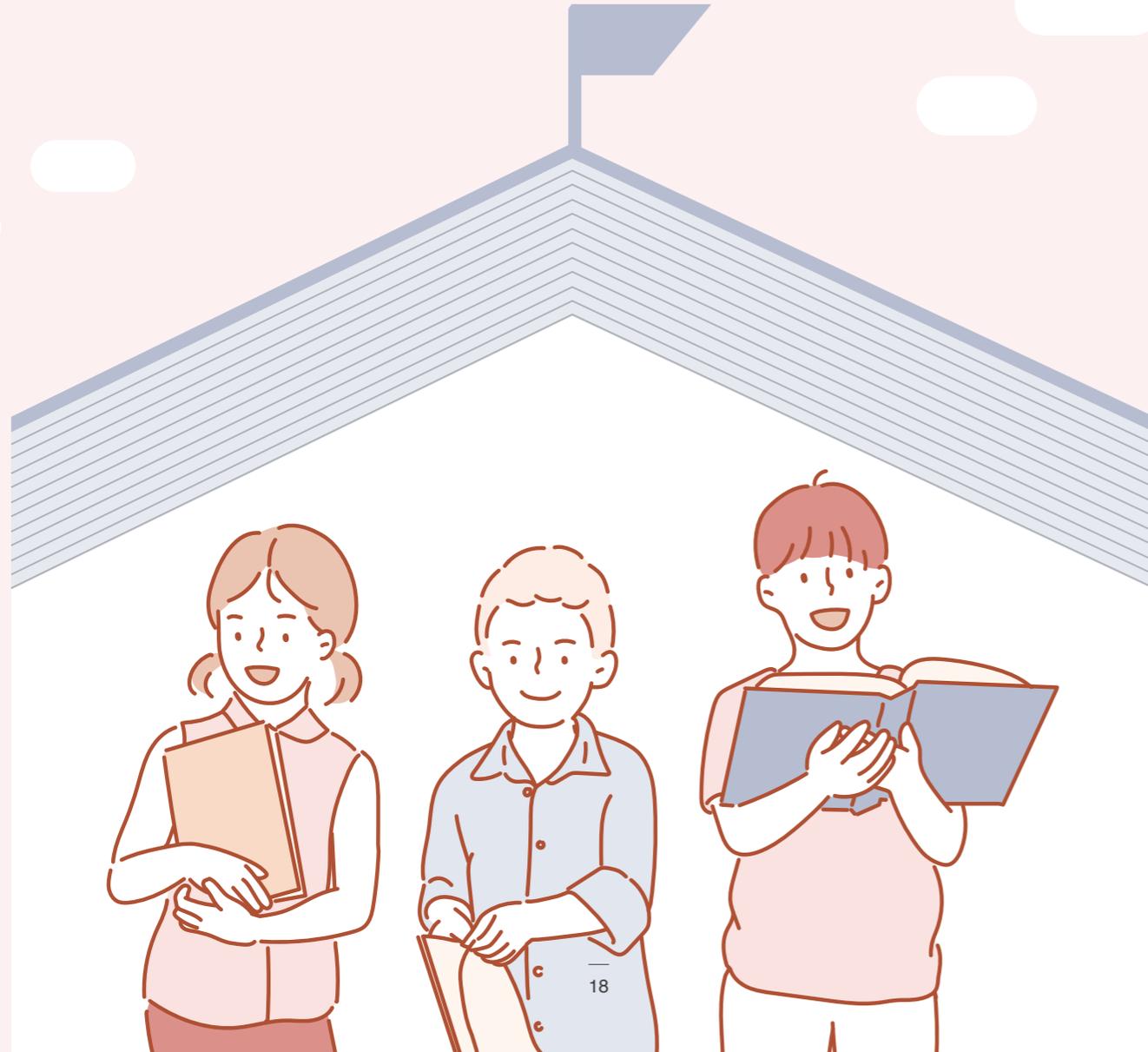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현장의 기술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최적화를 위해 형상관리기반의 '기술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 '신전자도서관'으로 명명했다. 형상관리는 현장설비와 기술정보자료 간 실시간 연계를 통한 신개념 이력관리 기법이다. 새로 구축된 신전자도서관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기술정보자료 서버의 일원화를 바탕으로 발전설비에 발생한 수정 및 변경사항을 기술정보자료에 실시간 반영 및 일치시키는 형상관리기법이 최초로 도입된 최신의 선진 시스템으로 발전설비를 보다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용으로 기술자료를 신속·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전소 운영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발전설비와 기술자료 간 불일치 오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설비 오조작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Edu For All 지구촌 교육나눔의 현장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를 비롯,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뜻밖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 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교육나눔을 진행해온 해외사례를 살펴본다.

글 - 홀트아동복지회 홍우정 나눔사업본부장



## Philanthropy

### 나눔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

예로부터 조상들이 콩 세 알을 심는 이유인즉 하나는 땅속의 벌레 뚫이고, 하나는 이웃의 뚫이고, 나머지 하나가 나의 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단다.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야 하는 동반자로 보았던 공동체 의식이 돌보인다.

오늘날은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 재난과 사고, 환경파괴, 부패와 비리를 조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나눔교육은 이런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육나눔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과정에 기부 학습 및 봉사 학습 등이 개설되어 있어 타인과 배움을 나눌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나눔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 지역사회를 돌보는 필란트로피

'필란트로피(Philanthropy)'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사랑하다'는 뜻의 '필로(Philo)'와 '사람'을 의미하는 '엔트로피(Entropy)'가 합쳐진 단어로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미시간주와 인디애나주에서는 1980년대부터 필란트로피 교육을 시작했다. 세대교체와 경기불황으로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이 시기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간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았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의 자산이자 성숙한 시민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유스 필란트로피(Youth Philanthropy)'가 확산할 수 있었다.

유스 필란트로피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첫째,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돈과 시간 및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기여자로 인정받는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와 에너지가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리더십을 함양한다. 이렇게 청소년기부터 경험한 교육나눔은 몸과 마음에 습관화된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을 뛰어넘어 이웃과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른 인성과 마음가짐을 체득하는 것이다.

## Education

###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러닝투기브

미국의 '러닝투기브(Learning To Give)'는 나눔의 역사를 비롯해 비영리단체와 시민의 역할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학자, 교사,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러닝투기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나눔 커리큘럼을 통해 나눔의 정의, 나눔과 시민사회, 나눔과 개인, 봉사활동과 서비스 등 4개의 나눔 주제를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청소년들이 나눔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며, 봉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학년별 버전으로 세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는 이를 교과 내용과 접목해 가르치고 청소년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기부, 모금, 봉사, 연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다.

예를 들어 입양의 날에 교사는 입양과 관련해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하고, 청소년은 입양을 돕는 지역 기관을 조사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모금 활동을 펼친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입양 관련 기관의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하는 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교 교사와 공동으로 개발되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한 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된다. 그리고 러닝투기브 홈페이지에 올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Learning To Give



## Oxfam



###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 옥스팜

영국의 '옥스팜(Oxfam)'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과목에 시민 정신을 포함하여 나눔과 베품, 봉사 등을 교육한다. 학생이 적극적인 시민이 되도록 권장하고 세계문제를 이해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시민성, 괴롭힘, 아동의 권리, 기후변화, 갈등, 개발, 재해 및 비상사태, 지진, 교육, 환경, 평등, 공정무역, 음식, 글로벌 식량 위기, 건강, 인권, 전쟁과 평화, 밀레니엄 개발 목표, 빈곤, 인종차별, 재활용, 사회정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모든 학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Giving Nation 프로그램'이 있다.

Giving Nation 프로그램은 시민성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아동·청소년이 문제 인식 및 토의를 통해 모금 및 캠페인 활동과 자원 활동을 하는 것에 목적으로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적 이슈를 정하고 시간, 재능, 현금 기부 중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며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영리단체를 탐색하고 스스로 단체와 이슈를 선정하여 단체를 돕는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 나눔이 생활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나눔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체계적으로 교육나눔을 실시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 앞으로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부모와 아이, 학교와 선생님이 함께 나눔의 토양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을 위한 나눔의 의미와 나누는 방법' 등을 가르쳐 나눔의 세대를 키워야 할 것이다.

## 시간 품은 폐교로 추억여행

아이들이 떠난 자리, 폐교는 색다른 변신으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오랜 시간의 흔적 위에 도서관,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등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다.  
 아이들이 떠난 후 쓸렁하기만 했던 폐교의 색다른 변신을 만나보자.



## 책지기 부부가 만든 작은 마을 속 큰 도서관, 책마을해리

### 뚝뚝뚝, 폐교는 책을 싣고 도서관이 되어

전북 고창 해리면에 위치한 나성 폐교.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는 시골 학교의 모습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외로움을 남긴다.  
 책마을해리는 아이들이 떠난 지 오래인 나성 폐교를 변신시킨 곳이다. 서울에서 출판일에 종사하던 이대건 촌장은 책마을을 만들겠다는 꿈으로 폐허가 된 학교를 가꿔나가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아예 가족과 함께 이곳에 정착했다.



66

책마을 해리는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이라는 모토처럼 누구나 책과 출판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99

**모락모락, 책이 피어오르는 마을로 놀러오세요**

책마을해리는 빼격거리는 복도를 다시 깔고 교실을 말끔하게 단장해 책과 출판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노력 끝에 책마을해리는 동학평화도서관, 책숲시간의숲, 버들눈도서관, 책감옥 등 여러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기증받은 책 20만 권을 곳곳에 비치해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Info**

- 주소 전북 고창군 해리면 월봉성산길 88 • 연락처 070-4175-0914
- 관람시간 화~토요일(10:00~18:00), 월, 일, 공휴일(휴무) • 입장료 도서구매로 대체



{동학평화도서관}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는 장소는 입구 오른쪽 느티나무 위에 지은 '동학평화도서관'이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왔을 나무 위의 오두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 위 아담한 집에서 책을 읽노라면 톰 소여가 된 듯한 느낌이다. 이곳에서는 민족민주운동 뿌리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동학과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어볼 수 있다.



{책숲시간의숲}

교실을 2개를 합쳐서 만든 '책숲시간의숲'에는 3만여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다. 천장을 뜯어내면서 드러난 공간까지 책을 꽂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에서는 캠프, 강연, 심포지엄, 포럼 같은 행사가 열린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팀이 다녀가기도 했으며 영화배우 공유의 화보 촬영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버들눈도서관}

'버들눈도서관'은 복층 구조이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다락방 같은 포근한 공간이 나타난다. 버들눈도서관은 책마을해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교실과 복도를 터서 경계를 없앤 공간, 사방에 빈틈없이 꽂힌 책, 앉거나 기대기 좋게 군데군데 놓아둔 의자와 쿠션까지. 아이들이 편하게 뒹굴며 책에 빠져들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책감옥}

'책감옥'은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들어가 다 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 자발적 감옥인 셈이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게 돼 있고 문 아래쪽에 식사를 넣는 구멍까지 있다. 집기는 얇은뱅이책상 하나, 침대 하나, 책장 두어 개가 전부다. 책감옥에는 책을 딛고 선 죄수가 앙증맞게 그려져 있는데 마치 만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 자연 속에서 예술을 누리다

아미미술관은 폐교된 구 유동초등학교를 작가 박기호씨와 설치 미술가 구현숙씨가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사립미술관이다. ‘아미(ami)’는 프랑스어로 친구, 애인을 뜻한다. 애정어린 마음이 듬뿍 담긴 단어에는 문화 소외지역의 예술인과 지역민이 아미처럼 가깝고 친근한 미술관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모토가 담겨있다. 마침 미술관은 뒷산인 아미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데, 산의 능선이 마치 여인의 아름다운 눈썹을 닮아 아미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옛날 학교의 정취와 자연이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이곳의 트레이드마크는 바로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는 담쟁이 넝쿨이다. 미술관에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는 담쟁이 넝쿨은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햇빛을 받아 더 산뜻하게 빛나는 짙은 초록색의 넝쿨은 하나의 전시작품처럼 보인다.

특히 옛날 학교의 모습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계절마다 달라지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진 찍기 좋은 출사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아미미술관은 ‘당진 가볼 만한 곳’, ‘사진 찍기 좋은 미술관’, ‘데이트하기 좋은 미술관’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다.

### 지역, 예술, 작가가 상생하다

주변 경관만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미미술관은 당진은 물론 인근 예산·홍성·서산에서도 유일한 등록 사립미술관으로 지방에서는 드물게 학예사를 두고 15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했다. 정기 기획전도 대도시 미술관 못지않게 열린다.

미술 분야는 크게 상설전시회, Here and There전, 전속 작가 작품전, 어린이미술제로 나뉘며, 이들 기획전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린다.

전시실은 5곳으로 평소에는 상설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기획전을 유치하며, 작업실 4곳은 전속 작가들의 작품활동실 또한 전시 및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위한 작업실이다. 한옥은 전통가옥을 복원하여 선조의 생활 도구 및 생활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전속 작가들의 거주 숙소로도 활용 중이다. 연구실에는 2,000여 권의 일반 교양서적과 미술 서적, 철학 및 종교 서적을 비치하고, 200여 점의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아미미술관은 미술문화의 활성화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문화, 건축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일조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 Info

- 주소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753-4
- 연락처 041-353-1555
- 관람시간 매일(10:00~18:00)
- 입장료 24개월~청소년 4,000원, 성인 6,000원



#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 교육혁신리더와의 만남

사람들은 저마다의 색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획일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신의 색을 잃어간다. 개인의 내면이 흐릿해지는 위기의 지금, 당신만의 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물감과 붓을 쥐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다채로운 세상을 그리는 이들, 책마을 해리의 이대건 촌장과 자유학교의 양석원 대표를 만나본다.

### 종이와 활자의 감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책마을 해리의 이대건 촌장은 올해로 27년째 책을 만들어온 출판기획자이자 편집자이다. 촌장이라는 호칭에서 살피듯 마을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

20년 전,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장을 할 때의 일이다. 당시 '종이책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전자책의 시대'라는 흐름이 출판계에 큰 파문을 남겼다. 이대건 촌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책은 진화할 텐데 미래 세대에게 책의 원형, 종이와 활자에 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책마을 해리의 시작이었다.

책마을 해리는 출판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가 공동체를 이룬다. 더불어 책마을 해리를 아름답게 가꿔주는 예술가와 평생 책 읽히는 일을 해온 독서운동가도 함께 살고 있다. 저마다의 색이 뚜렷한 마을 구성원은 한데 힘을 모아 책학교를 개강한다. 책학교는 독서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갈무리해 출판하는 학교이다. 이 과정을 통해 책이 교육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대건 촌장의 바람이다.

읽는 문화, 쓰는 문화, 나아가 퍼내는 문화가 한 사람과 사회를 함께 성장시키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책마을 해리의 핵심가치인 것이다.

### 책을 통한 연대와 유대로 하나되어

이대건 촌장이 책마을 해리를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은 책, 오로지 책이다. 평생 '누구나'를 꼬드겨 책을 내게 도와온 사람이었고, 그 일이 세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기획하고 만드는 책이 쌓여 벌써 320여 권, 함께 참여해 펴낸 저자가 4,100여 명이나 된다. 그 만남을 위해 짧게는 9년, 길게는 15년을 하나하나 공간을 일구고 가꿔온 것이다.

분명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한해 책농사를 마치고 졸업식 겸 전시회와 출판기념회를 할 때, 마을잔치로 이어지는 따뜻한 순간이 행복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글씨름, 책씨름으로 마음을 맞대는 정다운 순간이 행복하다.

이대건 촌장은 책마을 해리의 작은 날갯짓이 세대와 계층 사이, 도시와 시골 사이, 나아가 인종과 나라 사이의 간극을 좁히길 바란다. 책을 통해 연대하고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공간이 그의 꿈인 것이다.

이대건 촌장이 꾸려가는 책마을 해리, 그곳에 가면 우리 사회가 마음껏 체인지메이커를 꿈꾸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열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66

읽는 문화, 쓰는 문화,  
나아가 퍼내는 문화가  
한 사람과 사회를 함께 성장시키는 공간,  
그곳이 바로 책마을 해리입니다.

99

책을 읽고,  
나를 읽는 마을

책마을 해리  
이대건 촌장

한국에서 경험하는  
덴마크식 인생학교

자유학교  
양석원 대표

**덴마크의 행복 교육이 한국에 당기를 바라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초등학생들이 자기 몸뚱어리만 한 책가방을 메고 학원 차를 기다리는 모습은 언제부터가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다. 시설은 더 좋아졌지만 텅 빈 놀이터와 들을 수 없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반면, 지친 아이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수많은 학원 빌딩들이 숨 막힌다.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교육은 각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적성과 흥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잣대로 대학교 입학에 위한 시험성적 만들기를 최고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교육은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장단점과 적성에 대해 고민할 기회와 다양한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박탈한다.

양석원 대표는 이러한 교육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뜻이 같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 자유학교를 꾸렸다. 덴마크에서 ‘폴케호이스콜레’라는 덴마크식 전통적 교육 제도를 경험한 그는 학교를 위한 삶이 아닌 삶을 위한 학교를 꿈꾸며 고된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걸까? 덴마크의 행복 교육이 한국에 당기를 바라는 마음은 점차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있다.

66

쉽과 전환이 필요한 성인들이  
개인의 고유한 색과 향기를 찾으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유학교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99

**자유(自由)는 자기(自己)의 이유(理由)로 걸어가는 것**

폴케호이스콜레는 학생들의 자유가 가장 우선시 된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교과목과 담당 교사와 원하는 학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구상한다. 학생들은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심표를 찍고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과도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양석원 대표는 한국에서 폴케호이스콜레를 자유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도하고 있다. 자유학교는 ‘쉽’과 ‘전환’이 필요한 성인들을 위한 학교이다. 자신의 이유를 찾는 학교라는 뜻을 가진 자유학교는 덴마크처럼 기숙학교 형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양석원 대표의 꿈은 전국 곳곳에 자유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자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다양한 색과 향기, 소리를 존중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다양한 빛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

양석원 대표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과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 아름다운 꿈을 지탱해주는 사람들

### 국내 교육나눔활동

청소년의 꿈을 위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는 교육파트너가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며 더욱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자 하는 국내의 교육나눔단체를 소개한다.

# 01

### 모든 학생이 멘토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공신

‘공신’은 ‘공부를 신나게’의 줄임말인 동시에 ‘새로운 신(新) 공부법’으로 신나게 공부해 다들 공부의 신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신은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 교육봉사 동아리로 시작하여 모든 학생에게 공신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 준다는 가치를 가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청소년 권장사이트인 공신닷컴에서는 멘토링을 제공하며 각자의 멘토를 찾고 고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와 공감하며 나를 돌아보는 경험도 가능하다. 일부 유료 학습 콘텐츠를 통해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멘토링과 콘텐츠는 모두 무료이다.

홈페이지 : [www.gongsin.com](http://www.gongsin.com)



# 02

### 배우려는 학생이 있다면 어디든지, 사사로

‘사사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줄임말로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교육봉사단체이다. 사사로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무상 외국어 교육을 통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장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각 영역의 전문가가 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주 1회, 2시간 가량 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사로는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뿐 아니라 탈북민과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다국어 교육사업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영어 교육 외에 중국어 수업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특수 언어 교육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홈페이지 : [www.sasaro.org](http://www.sasaro.org)



# 03

### 전국 대학생들의 뜻깊은 나눔, 배나사

‘배나사’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대학생 비영리 교육봉사단체이다. 전국에 분포된 교육장을 중심으로 각지의 대학생이 모여 중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시작된 이후 만 명 이상의 교사와 학생들이 활동했으며, 8개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배나사는 자체적인 교육시스템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정교사·부교사 제도를 도입해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심도 있게 지도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학습하기 적절하도록 자체적으로 교재와 문제지를 제작하여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사들이 작성하는 일지와 학생평가는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관련 사항을 공유하여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facebook.com/edushare](http://www.facebook.com/edushare)



# 04

##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위스타트

‘위스타트(WeStart)’는 우리 모두 나서서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도와주자는 운동이다. 또한 ‘We’는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영문 머리글자기도 하다. 2004년 설립된 위스타트 운동본부가 중심이 돼 전국에 위스타트 마을을 만들고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의 교육·복지·보건 향상을 위해 힘 쏟고 있다.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의 아동일 경우, 지속적으로 문화 예술 교육을 받을 여건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위스타트는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발굴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연 단 활동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정서의 안정을 꾀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홈페이지 : [www.westart.or.kr](http://www.westart.or.kr)



# 05

## 우리네 동생을 위한 행복도우미, 서울동행프로젝트

서울동행프로젝트는 재능나눔 활성화 및 공교육강화를 위해 대학생 봉사자들이 초·중·고 동생들에게 학습 및 예·체능 활동 등을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이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또는 관련 기관이 동행홈페이지에 수요처로 가입을 하고 활동프로그램 요청을 하면 홈페이지에 가입해있는 대학생 봉사자가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학생 봉사자의 학교(혹은 집) 소재지는 무관하며, 수요처 학교 또는 기관의 소재지가 서울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최소 40시간의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고 우수봉사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봉사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봉사자는 필수적으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활동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지기 때문에 봉사에 책임을 다할 수 있어 질적으로 보장된다.

홈페이지 : [www.donghaeng.seoul.kr](http://www.donghaeng.seoul.kr)

## 꿈 더하고 행복 나누는 위피 감성발전소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형극,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등 태안지역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과 공연 개최를 지원한다.



## 꿈너머 꿈 진로멘토링

태안뿐 아니라 발전소 소재 지역 인근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서부발전의 국가품질 명장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실무 기술을 전수하고, 산업현장탐방 등을 통해 진로교육과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WP's Volunteer**  
한국서부발전의 교육나눔활동

## 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사업

학습 환경이 열악한 태안 지역아동센터 내 도서관 개관, 도서 및 학습기자재 보강,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3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탁월한 빌레나무(제주도 자생식물)를 지역 학교에 보급하는 ‘녹색교실 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위피 드림-UP

2019년 9월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우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다양하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생활 지원, 학업·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38 서부인 신입일기**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의 나날\_보안처 비상계획부 강현준 사원

**40 서부인 만슬리플래너**  
한 달의 재발견! 31일의 아름다운 도전

**44 Cinema Therapy**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기억과 무엇이 다른가\_영화 스포트라이트

**48 잘있니, 그 시절**  
팬덤문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_팬덤문화 변천사

**50 트렌드 2020**  
올로(YOLO) 대신 홀로(HOLO)\_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트렌드

**52 열정, 불을 붙이다**  
세계는 유튜브 전성시대!\_유튜브 창업자, 스티브 첸

**54 세계는 휴식 중**  
지식과 휴식의 창고! 세계의 도서관

**55 지속가능 프로젝트**  
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까지!\_트리 플래닛

**56 펫츠고**  
반려동물을 위한 이색서비스

**57 나도 모르間**  
당신의 관절을 망치는 사소한 습관

**58 WIN-WIN**  
담대한 도전정신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_(주)보강하이텍

**60 WP NEWS**  
한국서부발전 뉴스

**63 WP EVENT**



# FOR SOUL AND BODY ————— KNOCK-ON WP

#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의 나날

## 보안처 비상계획부 강현준 사원

끊임없는 노력으로 신입사원이 된 한국서부발전의 슈퍼루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낯선 업무로 당황하고 아는 것도 버벅대는 통에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도 한다.

‘실수 없는 완벽한 사원’이 되길 꿈꾸며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한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첫 출근길, 사택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회사가 반갑지만은 않다. 출근길이 길었더라면 긴장을 풀고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회사 건물을 보는 순간, 진짜로 내가 한국서부발전의 직원이 됐다는 설렘에 모든 걱정을 잊었다. 사원증으로 정문 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어찌나 짜릿하던지, 경쾌한 알람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처음 뵈는 선배님들은 어색하게 서 있는 나를 부서로 안내해주셨고 금방 내 자리와 컴퓨터들을 마련해주셨다.

와! 드디어 나도 직장인이구나!

내가 배정받은 부서는 보안처의 비상계획부이다. 비상계획부는 회사의 시설과 문서, 출입인원과 관련하여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생소한 업무였지만 우리회사에 속한 여러 발전소 및 타기관에 방문할 기회가 많은 직무이기에 기대가 컸다. 실로 세종시 산업융상자원부출장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회사 대표로 행사에 참여해 여러 공공기관 직원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했었다. 그때의 뿌듯한 감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고, 덕분에 업무에 욕심도 생겼다.

사택과 회사를 오가는 출근길이 익숙해지고부러는 자전거로 출근을 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몰라 한참을 헤맸고, 회사 안을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경비대장님께 도움을 받았다. 그 이후로는 회사 업무나 생활 전반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여쭙보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고생한다.

더불어 내가 어떤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실하는 습관도 견지해야 한다. 나는 그동안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컴퓨터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신입사원이었다. 다행히 사소한 것도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지만 무엇이든 나를 과신하는 습관은 사회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 같다.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느새 잘 시간이다. 누워서 내일 업무를 떠올려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뭘 먹을지, 어디에 놀러 갈지 생각하다 잠에 빠진다. 주중을 열심히 보내다 보면 금방 금요일이 된다. 금요일에는 일찍 회사 버스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올라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저녁을 먹으며 서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아직은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이 훨씬 많은 신입사원이지만 앞으로 내게 펼쳐질 경험과 배움을 기대하며 먼 훗날의 나를 그려본다.

# 한 달의 재발견 31일의 아름다운 도전

1년의 긴 계획은 자칫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  
연말의 실패를 딛기 위해 서부인의 '한 달 도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 무심코 흘려보냈던 한 달을 재발견해보자.



## #01 몸짱보다 건짱이다!

### 도전후기

웰다잉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웰다잉에 관심을 가지던 차, 먼슬리 플래너에 도전하게 되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심신의 활력을 주는 것이 웰다잉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주중에는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로 근력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산행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했다. 운동은 강도를 조절하여 업무와 병행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했다. 앞으로는 나만의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흥미롭게 운동을 해 볼 예정이다.

### 서부인에게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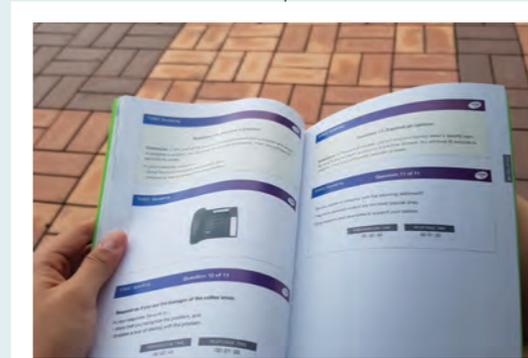
운동은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자기만의 운동을 하길 바란다. 몸짱보다 건짱이 더 짱이다! 그리고 각자 가장 힘이 되는 말을 운동할 때 마다 외쳐 보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더욱이 어려운 일도 아니며, 이런 쉬운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젊어질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도전자** 태안발전본부 교육훈련센터  
김일 과장

**도전기간** 2020년 7월 19일~8월 18일

**도전목표** 운동하기



**도전자** 태안발전본부 2발전처 발전운영실 발전1부  
이정수 사원

**도전기간** 2020년 7월 20일~8월 20일

**도전목표** 하루 10분 전화영어하기

## #02 내 방 안의 작은 미국

### 도전후기

해외여행을 다니며 외국인 친구를 만나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되어 아쉬웠던 중, 외국어에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전화영어를 시작했다. 원어민 선생님과 전화영어를 하는 방식이며 미국에 거주하는 선생님과 하루에 10분씩 주5일 진행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는 K-POP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선생님도 블랙핑크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공감하며 이야기했다. 수업과정이 남아있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지금의 출석률을 꾸준히 유지하며 마무리하려고 한다.

### 서부인에게 추천

전화영어와 함께 토익시험을 병행했는데 듣기영역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뿌듯했다.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영어권 영상을 볼 때도 문장이 더욱 선명하게 들린다. 요즘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어공부를 할 수 있으니 언어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한다.

## #03 내 인생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 도전후기

10월에 개최되는 춘천마라톤 폴코스 완주를 목표로 다리 근력 강화, 심폐지구력 향상 및 체중 감량을 위해 먼슬리 플래너에 도전했다. 비록 마라톤은 취소되었지만 딸과 함께 바디프로필을 목표로 10월까지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달리기뿐 아니라 다른 운동도 병행했다. 수영을 통해 폐활량을 키우고 사이클과 등산을 통해 하체 근력을 강화했다. 주말에는 육아 겸 딸과 함께 운동하는데, 부녀간 오손도손 좋은 추억을 쌓고 있다.

### 서부인에게 추천

현대인에게 운동은 필수이다. 코로나19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면 혼자서도 걷기, 달리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당신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언젠가 해야겠다고 미루다가 가장 젊은 날을 잃지 말고 지금, 오늘부터 걷는 건 어떨까?



**도전자** 해외사업처 해외총괄부  
이철형 차장

**도전기간** 2020년 7월 25일~8월 25일

**도전목표** 춘천마라톤 폴코스 대비 훈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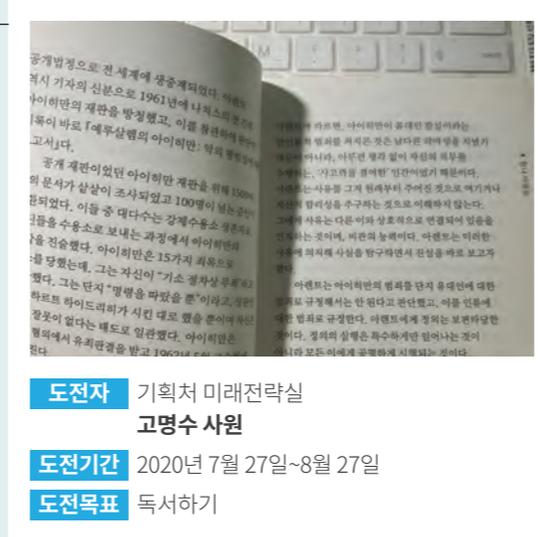
# #04 편안함이 권태로운 당신이라면

## 도전후기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저서를 모두 읽고, 그와 결이 비슷한 다른 철학자의 이론도 궁금해졌다. 그래서 선정한 책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는 한나 아렌트를 포함해 여성 철학자의 이론을 짧고 쉽게 분석해 주어 흥미롭게 읽었다. 이 책을 통해 좋아하는 철학자의 생각을 더욱 다각도로 즐길 수 있었으며 내가 소화하고 생각한 것 외에 타인의 생각과 분석이 담긴 책을 통해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다.

## 서부인에게 추천

서문에서 볼 수 있는 에이드리언 리치의 작품 문구이자 이 책의 제목인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라는 문장이 인상적이었다. 사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뼈 있는 문장이다.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위험한 자기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는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이 없을 때의 편안함도 좋지만, 편안함이 권태로운 당신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바란다.



**도전자** 기획처 미래전략실  
고명수 사원  
**도전기간** 2020년 7월 27일~8월 27일  
**도전목표** 독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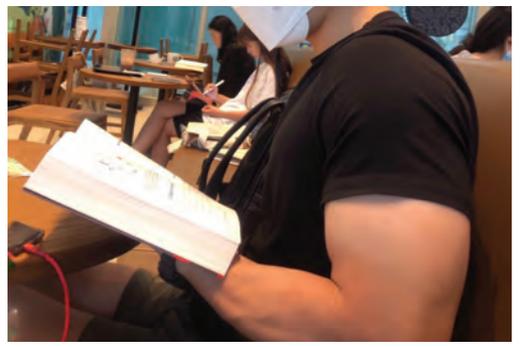
# #05 집콕운동도 꾸준히만 한다면

## 도전후기

지난 먼슬리 플래너에 참여했는데 인바디 수치로만 기록한 것이 아쉬워 다시 지원했다. 사실 운동과 휴식공간이 같다 보니 온전히 운동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다. 체육관에서 1시간 운동하는 동안 팔굽혀펴기를 200개 한다면 집에서는 퇴근하고 잠들기 전까지 4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해서 2배 개수인 400개를 하는 방식으로 여유롭게 마음을 먹었다. 방법을 바꾸었더니 마음이 달라졌고, 덕분에 초조해하지 않고 여유로운 자세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 서부인에게 추천

현대 사회에서 운동만큼 질병 예방에 효과적인 것도 드물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해진 만큼 서부인 모두 건강한 운동 습관을 지니시기 바란다.



**도전자**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 복합계측제어부  
이호일 사원  
**도전기간** 2020년 7월 26일~8월 26일  
**도전목표** 운동하기

# #06 글쓰기는 나의 힘

## 도전후기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접하며 내면의 창조성을 회복하고자 모닝페이지 작성을 시작했다. 모닝페이지는 수기로 작성하는데, 종이에 글씨를 쓰다 보면 더욱 진솔한 마음을 적을 수 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글을 쓰면 어느 순간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에 시간을 뺏겨 일부러 전자기기와 거리를 두었다. 쉽지 않은 않았다. 항상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기에 한 페이지도 채우지 못한 날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말라버린 우물에서 물길에 솟아오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모닝페이지가 습관화되었다.

## 서부인에게 추천

글을 쓴다는 것은 의식의 흐름을 붙잡아 시각화하는 작업이다. 글쓰기를 통해 내 안의 감정과 생각을 물 밖으로 꺼내 관찰하며 탐구할 수 있다. 곧,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글의 짜임새는 상관 없으니 글쓰기 명상을 통해 자아를 성찰 해보기 바란다.



**도전자** 군산발전본부 발전기술실 발전부  
윤현석 사원  
**도전기간** 2020년 7월 25일~8월 25일  
**도전목표** 모닝페이지(글쓰기 명상) 작성하기

# Spotlight

##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기억과 무엇이 다른가

### 영화 스포트라이트(2015)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가톨릭 사제들이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의 '스포트라이트' 취재팀은 이를 폭로하여 세상에 알렸다. 본 사건이 영화화된 <스포트라이트>는 피해자들에게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격려하고, 가해자들에게는 정의롭게 대척한 기자들의 모습을 담았다.

글·김준커 정신과 전문의

#### 우리 기억을 믿을 수 있을까

기자들의 끈질긴 취재 끝에 보스턴 지역에서만 약 90명의 가톨릭 사제들이 아동 성추행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리고 취재팀 기자들은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미국 최고의 언론상인 풀리처상을 받게 됐다.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정황과 증거 자료가 채택되어 2005년 2월에 성폭행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고 최소 1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2007년에 가해자들의 변호인들이 오심을 주장하면서 재판 판결기각 신청서를 제출한다. "오랜 시간이 지난 기억을 바탕으로 판결했는데 그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피해자들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는, 미국 전역의 100여 명에 가까운 정신과 의사, 뇌 과학자, 심리학자 등 전문가 집단의 법정 의견서였다. 의견서에 동의한 전문가들은 아동기의 성추행에 대한 기억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신뢰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의 말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공감한 일부 치료자에 의해 피해자의 어린 시절 기억이 과장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기억의 속성이란 워낙에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진실을 말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 일반적인 기억의 속성

물론 그러한 주장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원래 우리의 기억은 변덕이 심하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일상의 기억은 아주 쉽게 잊힌다. 중요한 사건 기억이라 해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대개는 많이 퇴색되어 흐릿해진다. 그래서 흐릿해진 기억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빠진 부분을 메우기 위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기억을 짜깁기해야 할 때가 많다. 어릴 적 함께 여행을 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굉장하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기억의 짜깁기가 개인의 뇌에서 제각각 다르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숙제를 안 해가서 선생님에게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은 사건에 대한 정보는 처음에는 매를 맞았을 때 손바닥에서 느낀 알싸한 열얼함, 매 맞기 직전의 극대화된 두려움,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느껴졌던 창피함 등의 기억이 생생하게 입력될 것이다. 그런데 이후 며칠 밤이 지나면 손바닥이 아팠던 기억, 무서웠던 기억은 상당히 많이 흐릿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 달쯤 뒤, 그 사건에 대해 남는 기억은 "숙제를 해 가지 않으면 벌을 받고 창피함을 느끼게 되니 다음부터 숙제는 미리 해가는 것이 좋다"는 교훈만 남게 된다. 이후 숙제를 꼬박꼬박 잘 해가고 칭찬을 받을 때마다 교훈은 강화될 것이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쩌면 숙제를 안 해서 야단맞은 기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늘 숙제를 해갈 때마다 칭찬받아 타의 모범이 되는 아이였다는 기억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저절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형되어가는 성향을 갖고 있다.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쪽으로 기억이 변화해야 우리는 세상 살아가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것이다.

### 단, 트라우마 기억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상담실에서 듣게 되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기억은 쉽게 변하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는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압도적인 트라우마의 기억을 전혀 가공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올 때마다 집 안을 부수고 폭력을 휘둘렀던 사건의 기억 정보는 우리 뇌에 너무 강력하게 입력되어 일주일이나 한 달이 지나도 쉽게 흐릿해지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정보 처리 시스템이 겨우 작동하여 조금이나마 기억을 처리하였어도 또다시 아버지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기억은 더 강력하게 각인된다. 이러한 사건이 열 번, 스무 번 반복되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기억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너무나 강력하고 파괴적이어서 정보 처리 시스템은 마비 상태에 빠져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성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빼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더하고 할 여력이 없다. 불덩어리와 같은 강력한 에너지의 기억 정보를 일시적으로라도 의식에서 멀리 떨어트려 놓는 것 외에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급적이면 떠올리지 못하게 해야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으니까 말이다. 운이 좋아 이렇게 해리되어 억압된 기억이 오랜 시간 동안 의식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별문제 없이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처리되지 않은 채 억압된 기억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트라우마 당시의 정보와 에너지를 그대로 담은 상태로 뇌의 신경 회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뭔가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트라우마 당시의 기억 정보는 그대로 생생하게 활성화된다.

실제로 보스턴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놀랍도록 비슷했다고 한다. 최대 30년이나 된 오래된 기억이었고 피해자들은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가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진술이 신기하게도 일치하는 구석이 많았다. 성폭행이 일어났던 장소, 성폭행을 당할 때 들었던 말들, 성폭행을 당할 때의 자세 등등이 대부분 비슷했다고 한다.



### 트라우마 기억의 입증 가능성

그렇다면 일반 기억과 달리 트라우마의 기억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을까? 아직까지도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렵다. 어디까지가 트라우마 기억이고 어디부터가 일반 기억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전문가가 트라우마의 기억이 정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보스턴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룬 재판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술 중 50%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2010년 대법원은 보스턴 아동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만장일치로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한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경험한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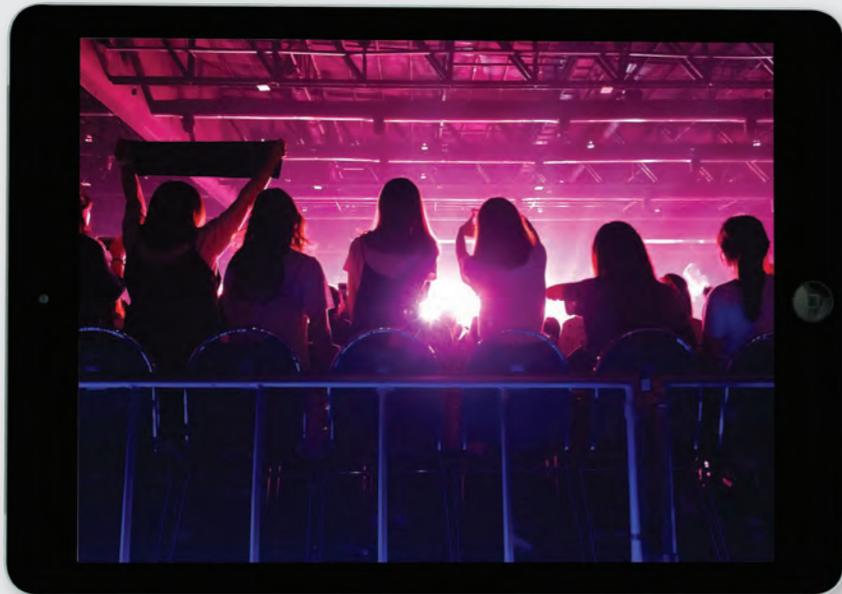
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마도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트라우마 기억의 파편들이 이상하리만치 비슷했던 점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록 과학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렵고 고통스러워 "기억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 기억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옳다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PS.** 반대로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기억에 접근하여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억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견뎌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억은 다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현대 트라우마 치료의 기본 토대이다.

# 팬덤문화, 어디까지 알고 있니?

## 팬덤문화 변천사

스타의 팬을 이르는 이른바 ‘팬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특정 스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팬덤 문화를 알아보자.



1980

### 팬덤문화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팬덤’은 열광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fanatic’의 ‘fan’과 ‘영토 또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접미사 ‘dom’의 합성어로 특정한 인물을 열성적으로 좋아하거나 몰입해 그 속에 빠져든 집단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팬덤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신세대 문화로 인식되기도 했다. 최근 팬덤은 대중문화 소비의 적극적인 주체로 거듭났다. 대중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성을 부여하는 긍정적 역할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팬덤문화의 역사는 1980년대의 조용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팬덤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다. 서태지와 아이들부터 H.O.T·젝스키스·신화·god 등 1세대 아이돌 스타의 등장 이후 조직적인 응원문화가 형성되고 팬덤의 개념이 대중화됐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H.O.T와젝스키스 등 핵심 1세대 아이돌 스타가 돌연 해체되면서 팬덤도 정체기를 맞았다. 그러다 2000년대 동방신기·슈퍼주니어·빅뱅 등 2세대 아이돌 스타의 등장과 함께 팬덤도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팬덤 문화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시기이다. 2000년대 이전 팬덤은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는 지지자의 역할이 강했다면 이후에는 스타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로 확대됐다.

### 내 연예인은 내가 책임진다

조용필의 오빠부대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음반 구매와 콘서트 티켓 예매가 최선이었다면 1990년대에 접어들며 지금의 팬문화가 본격화됐다. 각 지역의 특정 은행에서만 판매되는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은행 앞에서 대기했으며, 음반이 발

1990

매되는 날에는 예약해둔 앨범을 받기 위해 레코드점 앞에 줄을 서기도 했다. 또 TV 재방송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해 소중히 간직하기도 했으며, 1년에 한 번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콘서트와 시상식에는 스타를 상징하는 색의 우비를 입고 풍선을 흔들며 현장지원도 불사했다.

지금의 팬문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이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팬덤 활동도 보다 다양하고 편리해졌다. 굳이 레코드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쇼핑으로 앨범을 구매할 수 있고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원을 내려받아 MP3에 넣어 듣기도 했다. 콘서트 티켓 역시 인터넷 예매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우비와 풍선에 불과했던 굿즈도 티셔츠, 야광 머리띠, 응원봉 등으로 다양해졌다.

### 내 연예인을 위한 선행! 착한 팬덤문화의 등장

과거와 달리 두드러지는 팬덤문화 중에는 선행문화가 있다. 팬들은 아이돌 콘서트장에 화환과 함께 쌀이나 연탄을 보내 기부하거나 현장에서 직접적인 모금 활동으로 ‘아이돌 그룹 ○○의 콘서트 관객’과 같은 이름으로 나눔단체에 전달하기도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생일이 되면 더 활발한 선행문화가 이어진다. 아이돌 멤버의 팬클럽은 카페나 SNS를 통해 후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모금한 후 해당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한다.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하거나 해외 낙후지역에 우물을 기증하는 등 나눔을 실천한다. 이와 같은 아이돌 팬덤의 선행문화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0

# ‘올로(YOLO)’ 대신 ‘홀로(HOLO)’

##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트렌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소비자의 일상은 물론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집콕 라이프’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면서 소비경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 지금부터 코로나19가 바꾼 소비 트렌드를 알아보자.



### 발품팔지 않고 손품 파는 언택트 소비

코로나19의 습격은 우리의 일상을 한꺼번에 바꿔놓았다. 학교 대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회사 대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다.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영화를 보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소한 일상마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모든 경제생활이 집에서 이루어지면서 판매자가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택트 소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지만 배달 앱과 빠른 배송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은 소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은 변화에 민감한 청년층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았던 노년층에게도 급속히 확산 중이다.



### 남녀노소 모두 집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코로나19는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아닌 자기계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식문화의 변화이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홈쿡(home cook)’이 인기를 끌게 된 것. 4백 번 이상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 1천 번 이상 저어서 만드는 수플레 계란말이 등 SNS를 통해 다양한 요리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식재료를 비롯해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상품이나 반조리 가정간편식, 동물 모양의 쿠키나 간식 등이 이들과 함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상품 등의 판매량도 증가했다.

집 생활이 늘이문화로 발전하면서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캠핑하는 ‘홈캠핑(home camping)’도 등장했다. 이에 힘입어 실내텐트, 접이식 간이테이블, 휴대 의자 등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홈캠핑 관련 용품 판매도 함께 늘고 있다. 취미 용품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을 찾는 대신 DVD로 영화를 보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TV 시청이 보편화 되고 있다.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방문할 수 없게 되자 ‘홈트(home training)족’도 늘어났다. 홈트족의 증가로 아령이나 러닝머신 등의 운동기구와 다이어트 용품의 판매 증가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유튜브나 블로그 영상 이용률도 덩달아 높아졌다.

###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변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소비문화



#### Health care

위생용품을 비롯하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건강 관련 용품 판매가 늘어났다. 마스크, 체온계 등의 위생용품을 비롯하여 건강식품에서 보양식까지 건강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Oversize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은 한꺼번에 미리 구입해 두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휴지, 기저귀, 세제 등 생필품이나 라면, 통조림 등 가공식품에 대한 대용량 수요가 늘어났다.

# 세계는 유튜브 전성시대!

## 유튜브 창업자, 스티브 첸

아침을 유튜브 정보검색으로 시작하며, 제품 구매조차 유튜브 제품 후기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현대사회의 최고 서비스 중 하나이자 구글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그 시작은 어디일까?

### 페이팔에서 백만장자가 되다

전자결제 기업인 페이팔에서 일하던 스티브 첸은 2005년 직장동료 채드 헐리, 자베드 카림과 함께 유튜브를 설립했다. 유튜브 창업은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친구들과 찍은 비디오 영상을 공유하다가 비디오 공유서비스를 착안한 것.

유튜브 창업에는 페이팔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엔지니어로 일했던 그는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몰두했다. 당시 젊고 진취적인 인재가 몰려 있던 페이팔은 실무자가 업무를 주도하는 독특한 시스템이었다. 엔지니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각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웹디자이너는 이를 사이트로 구현하는 방식이었다. 기획안을 발표하고 회의를 거쳐 결재받은 뒤에야 실행에 옮기는 일반 기업과는 확연히 달랐다. 창의력이 즉각 실현되는 페이팔은 스티브 첸의 창업 신화가 가능하도록 뒷받침되었다.

유튜브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토론으로 시작됐다. 한 달이 넘는 토론을 통해 누구나 사용하기 쉬우며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유튜브’라는 이름은 불과 하루 만에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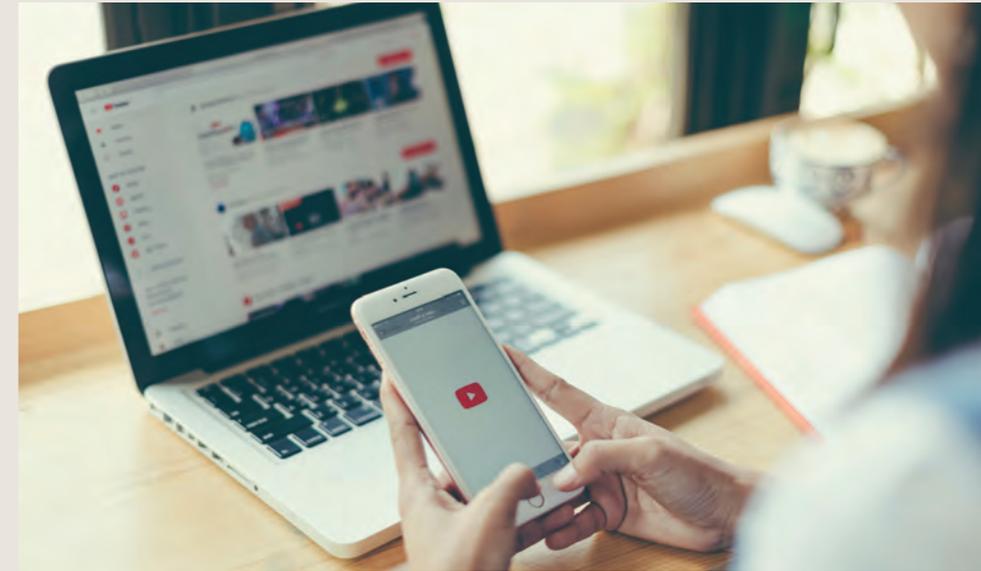
당신 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유(You)와 텔레비전을 의미하는 튜브(Tube)를 결합해 모든 사람, 또는 바로 당신이 시청자 겸 제작자라는 뜻을 강조했다.

2005년 6월, 이들은 유튜브의 동영상을 다른 곳에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됐다. 콘텐츠를 공개하고 분배하면서 사이트가 더욱 커진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동영상에는 유튜브 마크와 링크 주소가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매달 이용자가 두 배로 불면서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 밖에서 나오는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전 세계에 빛의 속도로 전파하는 미디어로 진화한 것이다.

### 구글의 과감한 결단, 유튜브를 사다

유튜브는 창업 1년여 만에 구글에 16억5000만 달러(1조6000억 원)에 팔렸다. 전 세계 벤처업계의 신화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2006년 유튜브 이용자가 급증하자 스티브 첸은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컴퓨터 서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야후와 구글이 인수하겠다고 나섰다지만 스티브 첸은 회사 매각을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엔지니어를 대하는 문화였다. 유튜브 직원의 80%가 엔지니어였기 때문이다. 구글은 엔지니어들에게 업무시간의 20%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배려해 주는 엔지니어 중심의 문화였다면 야후는 경영진 대부분이 비즈니스 전문가였다. 양사의 문화 차이는 스티브 첸의 선택을 쉽게 만들어줬다.



스티브 첸은 회사 매각으로 억만장자가 됐으며 타임지는 2006년 올해의 인물로 ‘당신(You)’을 뽑으며 “유튜브가 위키피디아, 마이스페이스 등과 함께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스티브 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09년 말 구글에서 나왔다. 하는 일 없이 구글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동업자 채드 헐리와 함께 ‘아보스’라는 회사를 세웠다. 그는 아보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함께 만드는 온라인 잡지를 구상하고 있다. 인터넷에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쓸모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매거진 공유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SNS를 저널리즘의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그의 목표는 세상을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 지식과 휴식의 창고, 세계의 도서관

도서관은 모든 종류의 문화 시설을 통틀어 가장 풍요로운 공간이다. 인류가 이루어낸 지적 성취물이 보관된 곳, 전통의 가치를 품고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세계의 도서관을 방문해보자.



## 스페인 '엘 에스코리알 왕립수도원 도서관'

엘 에스코리알 왕립 수도원은 마드리드 북서쪽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건물 단지로 궁전, 성당, 수도원,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스페인이 거둔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는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홀까지 갖추고 있다. 다채롭게 채색된 도서관의 천장에는 이탈리아의 매너리즘 화가 펠레그리노 티발디가 그린 그림이 있으며, 스페인에서 가장 귀중한 문학적 보배들을 비롯한 4만 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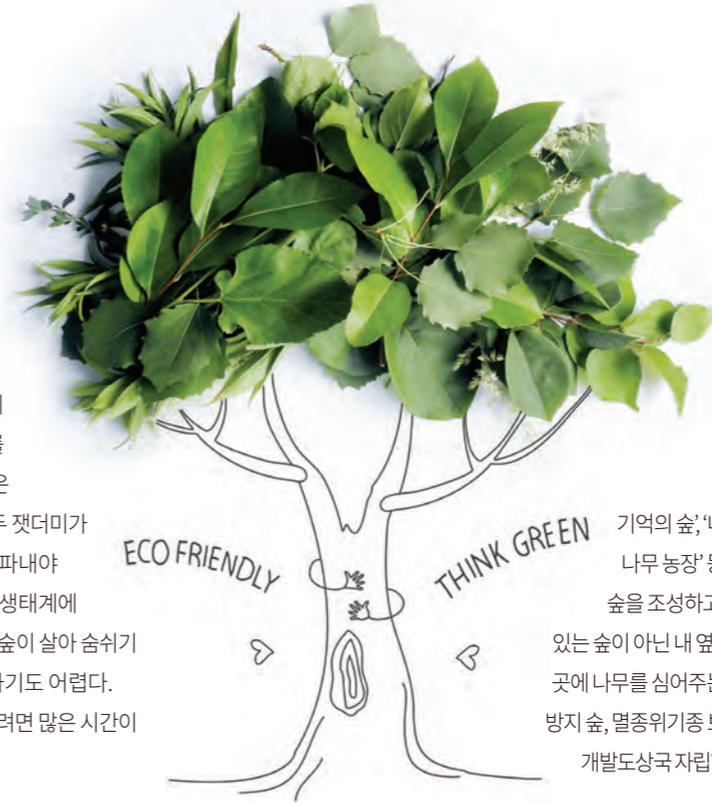
1592년에 설립된 트리니티 대학 도서관은 9세기에 만들어진 북음서 <켈스의 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매일 한 장씩 넘겨가며 전시되는 이 북음서를 보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한다. 2층으로 올라가면 65m나 되는 긴 북도 양옆으로 20만 권이 가득 채워진 서가가 우아하게 서 있다. 도서관 열람은 트리니티 대학 재학생에게만 허락되고 일반인은 관람만 가능하다.



##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

독일 남부의 공업 도시 슈투트가르트를 상징하는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은 1999년 한국계 건축가의 작품이다. 한국 선조들의 자연채광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부각했으며 동시에 독일 특유의 간결한 디자인 양식을 살렸다. 도서관 외벽에는 한국어로 '도서관'이라고 적혀 있다. 중앙에 위치한 출입구의 위로는 5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갤러리 형식의 서가와 열람실이 있으며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까지! Tree Planet



## 타버린 숲이 복원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결과는 처참했다. 잿더미가 된 땅 위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씨에 휩싸였던 산등성이 가운데는 맨살을 드러낸 채 흙먼지를 날려 보낸다. 새까맣게 탄 나무껍질은 솟가루만 날리고 무성했던 솔잎은 모두 잿더미가 됐다. 까맣게 그을린 토양은 몇 번을 파내야 갈색 흙이 나온다. 이번 화마는 산림 생태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다시 숲이 살아 숨쉬기 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타버린 나무들이 다시 울창한 숲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데.

## 작은 참여, 큰 숲 만들기 프로젝트

트리플래닛(Tree Planet)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는 방법을 만드는 소셜 벤처이다. 개인 또는 그룹의 신청을 받아 숲을 조성하는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사막화 방지숲', '세월호 기억의 숲', '네팔 지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커피 나무 농장' 등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숲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게임이나 멀리 있는 숲이 아닌 내 옆에 반려나무를 입양하면 숲이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어주는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숲, 미세먼지 방지 숲, 멸종위기종 보호 숲, 서울시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개발도상국 자립형 커피나무 숲 등 캠페인을 하고 있다.

## Making Forests

### \* 반려나무 입양하기

반려나무란 나무를 입양한 고객의 수익금으로 숲이 필요한 지역에 실제 나무를 심어주는 상품이다. 반려나무 키트에는 나무의 출생 번호와 양육 달력, 양육 가이드 등이 함께 들어 있어 마치 반려동물을 입양한 듯한 느낌을 준다.

### \* 스타숲 조성하기

스타숲이란 연예인 팬클럽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국내외 스타들의 이름으로 조성된 숲이다. 엑소 숲, 동방신기 숲 등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숲은 100여 곳에 이른다. 한류 열풍으로 중국, 인도 등 전 세계에 스타의 이름을 빌린 숲이 있다.

HOW TO? 트리플래닛 홈페이지([www.treepla.net](http://www.treepla.net))에서 구매 및 신청 가능

# 반려동물 비즈니스 '펫금융'

반려동물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각종 질병에 대비한 보험부터 집사가 세상을 떠나도 재산이 상속돼 안정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신탁까지. 지금부터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 시장을 알아보자.

## 반려동물 치료비 '펫보험'

반려동물 양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펫보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고령 반려동물 비중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의료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비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입힌 피해배상액, 장례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쉽게 말해 반려동물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인 셈이다.

**INFO**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DB손해보험 '아이러브'  
한화손해보험 '펫플러스' 등

**INFO**  
국민은행 '펫코노미신탁'  
'금지옥엽신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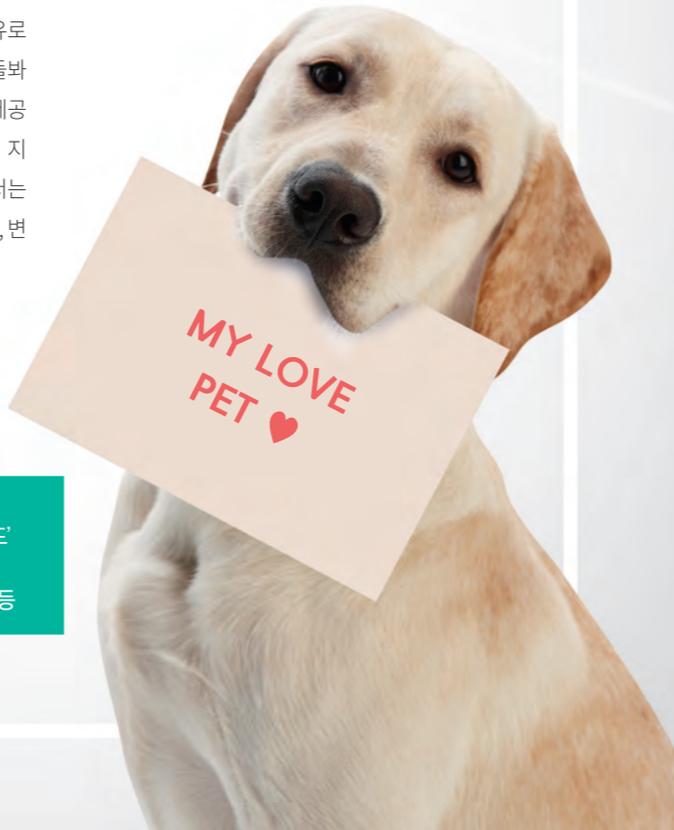
## 반려동물 상속권 '펫신탁'

'펫신탁'은 주인이 사망하거나 병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 줄 새로운 주인에게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새 주인은 기존 주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에서는 새 주인이 동물을 제대로 키우는지 점검하고, 변호사 등을 통해 관리한다.

## 반려동물 신용카드, '펫카드'

'펫카드'는 반려동물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용카드이다. 동물병원과 대형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청구 할인하기도 하며 전월 실적에 따라 반려동물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금융사 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INFO**  
국민은행 '펫코노미카드'  
농협 '펫블리카드'  
대구은행 '펫러브카드' 등



## 가벼운 외상을 관리하지 않으면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운동도 과도하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가볍지만 반복적인 외력으로 관절이나 근육에 손상을 입고도 이를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다가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운동할 때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먼저 몸을 풀어주고, 운동 뒤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 당신의 관절을 망치는 사소한 습관

50대 이하의 젊은 관절염 환자가 늘고 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할 시간은 없고 온종일 나쁜 자세로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관절이 손상된다. 이에 전문가가 선택한 관절 건강 망치는 습관 세 가지를 알아봤다.



##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 어깨는 잔뜩 움크리고, 팔은 팔꿈치를 굽힌 채 몸통에 붙인 상태가 된다. 또한,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받쳐 들고 엄지나 검지를 이용해 다양한 동작을 하게 된다. 이는 어깨나 손가락 등 관절을 망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틈틈이 피로해진 관절과 어깨, 목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 지나친 스트레칭을 하면

고강도 운동이나 과격한 유산소 운동만이 관절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동작을 취할 때에는 오히려 관절 손상의 원인이 된다. 무리한 요가 동작은 골조직의 질환으로 이어져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담대한 도전정신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 (주)보강하이텍 박성원 대표

주식회사 보강하이텍(이하 보강하이텍)은 2004년에 설립하여 변화, 도전, 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부터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경제적 가치 창출과 경영 혁신을 실현하고 있는 보강하이텍을 만나보자.



## 다각화된 시선으로 발굴하는 미래 가치

초기 발전플랜트가 장기간 운용되면서 노후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성능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보강하이텍은 특수 영상을 통한 기술제품을 개발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보강하이텍은 공장자동화 분야의 선진기술을 토대로 발전플랜트 최적의 제어시스템 구축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설계 및 제작, 설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특수영상카메라가 있다. 이는 화력발전소 보일러 내부에 카메라를 삽입하여 내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다. 실제 운영 중인 고온의 보일러에 기계를 투입함으로써 안전한 진단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비접촉식 진단장치가 있다. 이는 소리를 시각화하여 각종 설비의 이상음, 발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풍력발전기의 \*러셀, 각종 화학설비의 튜브에 고정형으로 설치해 원격모니터링하고 있다. 두가지 제품으로 대표되는 최적 제어 및 통합 모니터링 기술은 보강하이텍의 자산이자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보강하이텍은 'R&D 기반의 통합기술을 제공하는 솔루션 제공'이라는 창립취지에 걸맞게 각종 국책과제를 이행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제품화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다. 제품들은 국제발명대전이나 전시, 부상을 통해 기술의 효용성을 검증받았으며 발전소 신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까지 인정받고 있다.

\*러셀 : 기계적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발전장치

## 젊은 기업의 패기 넘치는 도전과 바른 성장

보강하이텍은 창업 이래,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직원으로 꾸러졌다. 그 이유일까?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두려움 없이 헤쳐나가는 단단한 각오가 보강하이텍의 자량이라고 한다. 일례로 보일러 초고온 카메라 개발 과정 당시, 국내의 유수의 기업이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대개가 포기를 선언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보강하이텍의 직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결국 개발에 성공했고 상용화에 이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박성원 대표는 직원들의 도전정신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촉매제였다며 든든한 직원들을 필두로 더 큰 비전을 그리고 있다. 예측과 진단에 그치는 정비가 아니라 현재 설비상태를 빅데이터화하여 예방정비 주기 및 장비에 대한 정비 주기를 산출하고, 운전원 분들에게 운전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남아있는 숙제가 된 셈이다.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처와 개발업체 간의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서부발전에서 실증개발을 통해 평가에 대해 우수 결과를 받고, 기술 개발한 것을 상용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게 된 것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협력을 기대한다.

보강하이텍은 앞으로도 첨단 IT융합 기술을 확보하여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연구할 것이다. 또한 제품성능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갈 보강하이텍의 행보를 응원한다.

# WP NEWS

Korea Western Power News 2020 9+10



### 01 두산중공업과 차세대 한국형복합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김병숙 사장과 두산중공업 정연인 사장 등 관계자 30여 명은 7월 13일 가스 복합 국가 기술자립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한국형복합 구축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복합화력 시장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3강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한국형복합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가스복합 기술자립을 위한 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국내 가스터빈 산업 발전을 앞당겨 깨끗한 에너지원 생산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02 해양조사선 ‘태안호’ 지역어촌계 기증

서부발전은 지난 7월 16일 태안군 방갈리 학암포항에서 해양조사선 ‘태안호’의 진수식을 열고, 지역사회에 선박을 기증했다.

해양조사선 ‘태안호’는 서부발전이 추진하는 농어촌상생의 일환으로 건조된 8.55톤 규모로 길이 12.72m, 너비 3.48m, 엔진 500마력 어선이다.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서부발전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월 사업에 착수, 6개월간 전남 녹동장주조선소에서 건조과정을 거쳐 최근 대산항만청에 등록을 마쳤다. ‘태안호’는 향후 학암포 지역의 공동어장 관리와 해양구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이 강화되고, 어업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03 ‘산업안전’ 지킴이 다양한 활동 전개

서부발전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서부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사업소에서 산업재해 예방 결의대회와 유공자 포상, 안전공감교육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7월 초에는 태안발전본부를 비롯한 전사업소에서 협력사와 함께 노사 합동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펼쳤고, 3無(무사고, 무재해, 무고장) 달성 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또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안전공감교육’을 통해 현장근로자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강조기간 동안에는 고위험장소와 안전취약설비 특별점검, 안전체조 모범 활용사례 발굴·전파, ‘숨은 위험 찾기’ 체험부스 운영 등을 상시 진행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협력사 안전신고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부발전은 올해 초부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사업소별로 안전문화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안전송 4곡을 제작한 후 사내통화 간 안전컨텐츠로 사용했고, 안전송을 활용한 체조를 만들어 전 사업소에 배포해 현장조화에 적용한 바 있다. 서부발전은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활동에 안전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04 코로나19 극복 훈훈한 ‘나눔’ 실천

서부발전은 7월 23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손소독제와 손소독 물티슈, 비접촉식 체온계 등 1억 원 상당의 방역물품 3200여 개를 충남 태안군에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한 방역물품은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총 22명의 임원급여 일부와 서부발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사랑나눔이’ 기금 등으로 마련됐다. 태안군은 오는 25일부터 그동안 중단된 지역 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다시 운영 재개하며, 체온계와 소독제 등 기부물품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 05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나서

서부발전은 지난 7월 24일 충남 KTX 천안아산역에서 한국철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등 3개 기관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향후 기관별 특화사업 발굴 및 교류 협력,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홍보·교육·컨설팅 제공,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851개로, 서부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06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 평택시 ‘명예시민’ 선정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이 평택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회적 가치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김 사장을 비롯한 서부발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역상생 협력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숙 사장은 지난 2018년 태안군에 본사를 둔 서부발전에 사장으로 취임, 평택발전본부가 위치한 평택시와 상생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감축,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평택발전본부는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썼다. 지난 3년간 지역 내 세차장(2개 지점)과 어묵카페(2개 지점), 소독업장 등에 발달장애인과 자활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39개를 창출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고동 분담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방역물품을 평택시에 기부했다. 아울러 평택발전본부에서 운영 중이던 중유 발전기 4기를 청정연료인 LNG로 조기 전환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기존대비 약 84% 감축했다. 이 감축량은 연간 34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서부발전은 올 하반기 축산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제기된 평택시 남양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사내벤처 제품인 ‘휴믹물질’을 이용한 악취저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 WP NEWS

Korea Western Power News 2020 9+10



### 07 일제강점기 동원된 조선인 ‘우토로마을’ 지원

서부발전이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일본정부에 의해 동원된 조선인 마을의 우토로동포들의 영구정착을 돕고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8월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흥사단(興士團) 회의실에서 우토로민간기금재단(이하 재단), 지구촌동포연대와 일제강점기에 동원된 조선인 동포들의 공동체인 ‘우토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정래 서부발전 국정과제추진실장을 비롯해 재단과 지구촌동포연대, 흥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과 재단, 동포연대는 우토로마을의 공동체 복원과 역사 보존을 목표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우토로 마을 복지향상,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 설치, 지속적인 한일 동포 간 교류를 위한 평화기념관 활동, 그밖에 기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단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를 담당한다.

이날 서부발전은 우토로마을 주민 150여 명의 생필품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재단 측에 기탁했다. 또 오는 2022년 4월 우토로 마을에 건설될 평화기념관(3층, 전체면적 378㎡)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기념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을 활용해 설치될 예정이다.

### 08 가족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안전생활’

지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 안전을 주제로 서부발전 임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안전포스터를 공모했고, 최종적으로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시상식은 8월 12일 충남 태안 소재 본사에서 열렸다. 수상은 초등학생과 일반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서부발전 본사 로비에 작품을 전시하고, 전 직원이 참여한 스티커 투표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주인공이 가려졌다. 수상자 5명에게는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이 직접 꽃다발과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 액자를 전달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안전포스터로 제작해 사업소에 배부하고, 사내 PC 화면보호기 등으로 활용해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09 코로나로 과제수행 기업들과 비대면 소통의 장 열어

서부발전이 연구과제의 효율적 관리와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26일 50여 개 협력사들과 비대면(Untact) 방식의 ‘연구과제 수행절차 및 정산 설명회’를 열었다. 연구과제 정산설명회는 서부발전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YouTube)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부발전의 연구과제 추진전략과 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연구과제 수행절차, 수행방법, 기술사업화 등이 소개됐다. 특히 전담 회계 법인이 진행한 사례중심의 연구비 정산설명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 서부공감 9+10월호 이벤트

이번 서부공감은 교육혁신리더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교육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초성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표 크 흥 오 사 크 리

#### 힌트

- 학생들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덴마크식 전통 교육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 “한국에서 경험하는 덴마크식 인생학교” 칼럼을 참고해주세요

#### 참여방법

아래 QR코드를 통해 한국서부발전 공식 블로그에 접속,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 당첨자상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50명 추첨)



#### 기간

2020년 10월 31일까지  
응모 가능

#### 당첨자발표

2020년 11월 13일